

敦煌寫本『妙法蓮華經』異本에 관한 고찰*

오지연
고려대장경연구소

머리말

I. 둔황사본『묘법연화경』의 異本

1. 연구 자료와 방법
2. 異本의 유형
3. 권차와 품차별 분포

II. 『묘법연화경』 제29품과 제30품

1. 연구 동향
2. 度量天地品 제29
3. 馬明菩薩品 제30

맺는말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KRF-2008-322-A00091)

요약문

본 연구는 돈황사본에서 발견된 『묘법연화경』(구마라집역)의 異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것이다. I장에서는 먼저 『묘법연화경』 스타인사본을 대상으로 異本들의 판본 유형을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현행 7권28품과는 다른, 10권27품본(A) · 8권28품본(B) · 현행본과 권차 구분이 다른 7권28품본(C) 그리고 제14품이 권4에 속한 판본(D) 등의 유형들을 추정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묘법연화경』의 돈황사본에 필사된 내용의 권차와 품차를 확인하였다. 많이 필사된 권차는 「관세음보살보문품」을 포함하고 있는 제7권, 그 다음으로 제2권, 제6권, 제1권의 순서였다. 많이 필사된 품은 「관세음보살보문품 제25」을 비롯하여 「비유품 제3」 · 「서품 제1」 · 「화성유품 제7」의 순이었다. 이것으로 보아, 돈황지역에서 관세음보살을 稱念하는 ‘관음신앙’이 대단히 성행하였으며, 법화경의 내용 전달에서 뛰어난 譬喩들이 설득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II장에서는 『묘법연화경』에 침품되어 유행하였던 「도량천지품 제29」와 「마명보살품 제30」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도량천지품」은 佛

經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으나 내용은 다분히 도교적이다. 「마명보살품 제30」은 諸經錄에 『妙法蓮華經天地變異經』이라고 이름된 경에 해당하는 것이며, 구성면에서는 경전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도량천지품」보다 훨씬 불교적이며 『大樓炭經』류의 僞經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5~13세기 당시 돈황지역에서 유행한 법화경과 법화신앙의 일면을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한 후에 좀 더 수정된 결과를 얻을 것을 기약해본다.

주제어

돈황사본, 妙法蓮華經, 異本, 度量天地品, 馬明菩薩品, 天地變異經

나 10권 본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기존에 『묘법연화경』의 판본 연구는 주로 산스크리트 사본이나 티벳어본 등의 원전들을 중심으로 한 역경에 관련된 비교 검토였다면,¹⁾ 본고는 돈황에 전해지는 한문사본들을 비교하여 당시에 유통된 『묘법연화경』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묘법연화경』의 異本들 가운데 전해지는 ‘제29 「도량천지품」과 제30 「마명보살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사와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실제로 돈황사본 가운데 이들 두 품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비교 검토한다.

머리말

20세기 초부터 발견된 돈황사본의 대부분이 불교문헌이다. 형식적으로도 불교의 경·율·론을 비롯한 여러 주석서 및 각종 실용문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 가운데 사본의 수가 가장 많은 것들로 『대방광불화엄경』 『금강반야바라밀다경』 『대반야바라밀다경』 『금광명최승왕경』 『묘법연화경』 등을 들 수 있다. 『화엄경』이나 『대반야경』은 절대적으로 그 권수와 양이 방대하므로, 단일 帙로 본다면 『금강경』이 가장 많다. 그 밖에도 『유마힐경』 『佛說佛名經』 『무량수경』 등의 사본 수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통해서, 5~13세기 돈황과 그 주변지역에서 성행하였던 불교의 경향을 짐작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돈황문헌의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묘법연화경』의 사본들을 비교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구마라집이 번역한 『묘법연화경』은 7권28품 혹은 8권28품으로 전해진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돈황사본들 가운데에는 29품 혹은 30품 그리고 9권이

I. 돈황사본 『妙法蓮華經』의 유형

『법화경』은 인도에서 성립된 이래로 가장 넓은 지역에 전해지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유행한 경전으로 손꼽힌다. 불교문헌이 발굴되는 곳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도 『법화경』 사본이다. 사본의 언어를 보면, 인도의 각종 언어를 비롯하여 티벳어, 위구르어, 서하어, 몽골어, 만주어, 중국어, 일본어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학계에서는 19세기에 법화경 사본이 유럽에 소개된 이래로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²⁾ 본고에서는 여러 사본들 가운데 돈황에서 발견된 한문사본들을 대상으로, 당시 돈황 및 중앙

1) 金倉圓照 編, 『法華經の成立と展開』, 第1篇 法華經の文獻史的研究(平樂寺書店, 1970, 京都); 우제선, 「법화경의 범어사본과 현대학계에서의 연구동향」(『천태학연구』9,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06); 李永子, 『법화 천태사상연구』 pp.4-9(동국대출판부, 2002) 등 참조.

2) 여기에 대한 간략한 연구로는 우제선(2006)의 앞 논문을 참조.

아시아 지역에 유행하였던 『법화경』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1. 연구 자료와 방법

본 연구는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돈황사본과 고려대장경의 실물대조와 전산화’³⁾라는 공동작업의 과정에서 얻어진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돈황사본이 6만여 건에 이른다고 하지만, 현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는 자료는 대영박물관 도서관 소장의 스타인(Stain)본 9,192건, 북경도서관 소장의 北本 9,176건,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의 펠리오(Pelliot)본 5,880건, 러시아과학원 동방학연구소 소장본(俄藏本) 4,785건 등 약 2만9천 여 건이다. 스타인본과 북본은 『敦煌寶藏』(1989)으로 영인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스타인본은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 사이트(<http://kb.sutra.re.kr/>)를 통하여 사본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작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펠리오본은 영인본 『法藏돈황서역문헌』(上海)과 『敦煌寶藏』에 수록된 잔여분을 대상으로 하고, 俄藏本은 영인본 『俄藏돈황문헌』(上海)을 이용하였다.

우선, 검토의 1차적인 방법은 각 돈황사본의 고려대장경과 관련 유무를 대조하는 것이다. 현재 위에 언급한 네 부류의 사본에 대한 1차 대조가 끝나고, 2차 대조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돈황문

3) 프로젝트의 완전한 명칭은 ‘TK-IRS의 디지털 이미지 연구 지원 환경에 기반한 고려대장경과 돈황 문헌 비교연구 시스템 구축 및 대조 연구’이다.

서의 佛典 가운데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것과 수록되지 않은 것이 나뉘고, 수록된 것 가운데서도 고려대장경과 경명·권차·품차 및 문장 등의 측면에서 同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었다.⁴⁾ 지금은 그러한 대조 결과를 바탕으로 『법화경』의 돈황사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돈황의 네 가지 사본들 가운데 『법화경』이 차지하는 분량은 대략 아래의 표와 같다.

〈표1〉 법화경 사본 수

	스타인본	북본	펠리오본	야장	계
총 사본 수	9,192	9,176	5,880	4,785	29,033
법화경 사본 수 (관음경 포함)	1,255	1,792	142	560	3,749

2. 異本の 유형

『開元釋教錄』권11과 권12에 의하면, 중국에서 『법화경』 전체를 번역한 것은 총 6종이라고 한다. 그 중 현재 전하는 것은, 竺法護가 번역한(286) 『正法華經』(10권27품)과 鳩摩羅什이 번역한(406) 『妙法蓮華經』(7권28품) 그리고 사나굴다와 달마굽다가 번역한(601) 『添品法華經』(7권27품)의 세 가지이다. 돈황의 법화경 사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구마라집 역의 『묘법연화경』과 일치하며, 일부는 『묘법연화경』과 『첨품법화경』에 동시에 일치한다. 그러나, 『첨품법

4) 1차 실물대조 결과 파악된 ‘돈황사본의 漢文佛典과 고려대장경과의 同異’에 대해서는 박상수, 「돈황문헌의 한문불교경전 구성유형 고찰」(『한국불교학』 제54집, 2009)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화경』이나 『정법화경』에만 일치하는 사본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라집 역의 『묘법연화경』 사본들에 주목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라집 역의 사본들은,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7권28품의 판본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본들은 고려대장경의 판본과 권차나 품차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 즉, 동일한 28품이더라도 7권본이 아닌 8권본이나 10권본과 같은 異本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들 판본의 유형 분류를 위하여, 2차 실물 대조 작업을 마친 스타인본 『법화경』 사본 1,255점을 검토하였다. 이 가운데 100여 점 이외의 사본들이 고려대장경에 실린 7권28품의 형식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것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대표적인 예를 뽑아보면,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묘법연화경』 異本 실물대조의 예

돈황 문서번호	돈황 卷次	고려장 卷次	돈황 품명	돈황품차	고려장품차	비고	이본 추정
S.2419	3	3	(藥草喻品)-授記品	(5)-6	5-6	권차 구분다름.	B/C
S.3464	5	4	(五百弟子受記品)-法師品	(8)-10	8-10	권차 다름.	A
S.6738	4	4	(五百弟子受記品)-見寶塔品	(8)-11	8-11	권차 구분 다름.	B
S.1688	4	5	安樂行品	14	14	권차 다름.	D
S.3511	5	4-5	提婆達多品-從地踊出品	12-15	12-15	권차 다름.	B
S.4082	7	5	(妙法蓮華經從地踊出品)-妙法蓮華經分別功德品	(15)-17	15-17	권차 다름.	A
S.1070	6	5,6	(如來壽量品)-法師功德品	(16)-19	16-19	권차 다름.	B
S.0644	7	6-7	(妙法蓮華經常不輕菩薩品)-妙法蓮華經妙音菩薩品	20-24	20-24	권차 구분 다름	B
S.3573	6	6-7	(法師功德品)-觀世音菩薩普門品	(18)-25	18-25	권차 다름.	C
S.3605	7	6-7	(常不輕菩薩品)-妙音菩薩品	20-24	20-24		B

S.3832	9	6-7	(妙法蓮華經如來神力品)-妙音菩薩品	(21)-24	21-24	권차 다름	A
S.0013	8	7	(觀世音菩薩普門品)-普賢菩薩勸發品	(25)-28	25-28	권차 다름	B
S.2105	10	7	普賢菩薩勸發品	27	28	권차, 품차 다름.	A

위의 표를 보면, 각 돈황문서에 표시된 권차와 고려대장경 판본의 권차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혹은 권차가 동일하더라도 돈황문서의 권차 구분이 고려장본과 다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S.6738에는 제11품의 마지막에 ‘妙法蓮華經 卷4’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고려장에서는 제13품까지가 ‘권4’에 포함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표2> 문서들의 권차와 품차 정보를 각각 <표3>의 각 란에 기록해본 결과, 스타인본에는 고려장본과 다른 적어도 4가지의 『묘법연화경』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문서가 속한 유형을 <표2> 맨 오른쪽 ‘이본 추정’란에 기록하였다. A·B·C·D로 표기된 4가지 판본은 각각 품 차 구분과 전체 권수가 다르며,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 제6품까지를 권3으로 구분한 S.2419의 경우, B 유형일 가능성이 크지만 혹은 유형C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리고 S.1688과 같이 ‘안락행품 제14’가 권4로 구분된 사본들도 적지 않다. D로 구분한 것은 위의 세 부류와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 정보만으로는 7권본인지 8권본인지 확정할 수 없다. 이러한 불확실한 사항들은 스타인본 이외의 사본들을 더 검토하다보면 보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표3〉*묘법연화경, 異本 추정 유형

유형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제6권	제7권	제8권	제9권	제10권
A					-8-10품	11품-	-17품	18품-	-21-24품	25-27품
B			-(6품)	(7)-11품	12-15품	16-19품	20-24품	25-28품		
C			-(6품)	(7품)-		18-25품	26품-			
D				-14품						

즉, A본은 10권27품, B본은 8권28품, C본은 7권28품으로 추정된다.

A본은, S.2105에 「보현보살권발품」의 품차를 ‘27’이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10권27품 본으로 추정하였다. 10권27품이라는 형식은 구마라집역보다 120년 이전에 번역된 『정법화경』의 형식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27품이란, 현재의 28품 가운데 ‘提婆達多品第13’이 누락된 형식이다. ‘제바달다품’의 번역이 永明8年⁵⁾(490)에

5) 『古今譯經圖紀』권4(『大正藏』55, 363b), “沙門達摩提。此云法意。西域人。悟物情深。隨方啟喻。以齊武帝永明八年歲次辛未。為沙門法獻於揚州瓦官寺。譯觀世音懺悔除罪呪經(一卷)。妙法蓮華經提婆達多品第十三(一卷)。” 그밖에 『歷代三寶紀』卷11, 『開元釋教錄』卷6, 『弘贊法華傳』卷2·『衆經目錄』卷2·『大唐內典錄』卷4 등에서도 ‘제바달다품’의 번역 년대를 ‘齊武帝永明八年’이라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천대 지의의 『법화문구』 권8(『大正藏』34,114c)에는 다른 내용의 언급이 있다. ‘寶唱經目云。法華凡四譯兩存兩沒。曇摩羅刹。此言法護。西晉長安譯名正法華。法護仍敷演。安汰所承者是也。鳩摩羅什。此翻重壽。是龜茲國人。以偽秦弘始五年四月二十三日。於長安逍遙園譯大品竟。至八年夏。於草堂寺譯此妙法蓮華。命僧叙講之。叙開為九轍。當時二十八品。長安官人請此品淹留在內。江東所傳止得二十七品。梁有滿法師。講經一百遍。於長沙郡燒身。仍以此品安持品之前。彼自私安未聞天下。陳有南嶽禪師。次此品在寶塔之後。晚以正法華。勘之甚相應。今四讀混和。見長安舊本。故知二師深得經意.’ 즉, 라집이 『묘법연화경』을 번역하여 제자 승예에게 대강을 시킬 당시에도 28품이 갖춰져 있었으나, 장안의 궁인이 이 품을 빌려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강동으로 전해진 것은 27품 뿐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지의가 법화경의 본 품을 강의할 때에 언급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실려진 것인지는 좀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바달다품’의 流轉과 정작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구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전의 판본을 필사한 것이다. 특히, S.2105 말미의 刊記⁶⁾에, 필사연대가 ‘永興2年(癸丑, 532)’⁷⁾이라고 되어있으므로 돈황문서들 중 상당히 이른 시기에 속하는 사본이다.

B의 8권28품 본과 같은 경우는 異本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본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隋唐代의 刻經인 『房山石經』에도 8권28품 본의 『묘법연화경』(789)이 발견된다.⁸⁾ 이것은 제11품부터 권4가 시작되고, 제25품부터 권8이 시작되는 형식을 취하여, B본과 권차 구분이 다르다. 『개원석교록』권11에도 ‘『묘법연화경』7권 혹은 8권’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唐代이전에 8권본이 많이 유통되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권차 구분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판본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돈황사본 내에도 다른 유형의 8권본이 있을 가능성이 크며,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스타인본 이외의 사본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C본은 고려장본과 동일하게 7권28품 본이기는 하지만, 품차 구분이 상이하다. S.2419를 보면, 「수기품 제6」까지가 제3권에 포함되

6) S.2105(妙法蓮華經卷第十), 『敦煌寶藏』권16, p.175에 수록된 刊記의 필사본이 『鳴沙餘韻』解說篇 第1部 p.269(矢吹慶輝 編, 1933)에 다음과 같이 옮겨져 있다. ‘永興二年歲次癸丑,三月辛丑,朔廿五日乙丑開弟子陳晏堆,南无一切三世常住三寶,弟子自唯宿行不純,等類有識,稟受風末塵穢之形,重昏□□□□有□□□□□□開□□□□□□□□言教大□果報无(以下破損)’

7) 矢吹慶輝는 ‘永興二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중국에서 ‘永興’이라는 연호는 後漢 桓帝의 永興(153-154), 晉 惠帝의 永興(304-305), 魏 冉閔의 永興(350-352), 前秦 苻堅의 永興(357-358), 北魏 明元帝의 永興(409-413) 그리고 西魏 孝武帝의 永興(532) 등이 있다. 라집이 『묘법연화경』을 역출한 것이 406년이므로, 그 이후 시대이며 干支가 癸丑이 되는 것은 西魏 孝武帝의 永興(532)이다.(矢吹慶輝, 위의 책, 제1부, p.269-270 참조.)

8) 中國佛教協會 中國佛教教圖書文物官 編, 『房山石經』隋唐刻經 3(華夏出版社, 1978), pp.354-368에 수록됨.

로 「화성유품 제7」까지가 권3으로 분류된 고려장본과는 다르다. 이 문서의 刊記⁹⁾에 ‘大業四年’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隋煬帝의 大業四年인 608년에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추정본은 28품 본만 대상으로 분류해본 것이다. 여기에 제29품이나 제30품이 첨가된 판본까지 고려한다면 9권본도 유행하였다고 보인다. 실제로, 「묘법연화경 도량천지품 제29」라는 제목으로 본 품의 전체 내용을 필사한 Pe1.2234와 北6189에는 권차가 ‘9’로 표시되어, 9권본으로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품의 끝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사본인 S.6588에는 ‘권8’로 표기되어 있어서, 제29품을 포함한 異本은 적어도 8권본과 9권본의 두 가지가 유통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마명보살품」 제30에 관한 사본에는 권차가 표시된 것이 없어서 정확한 권차를 언급할 수 없고, 다만 제29품에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이상으로, 라집역 『묘법연화경』이 현전하는 7권28품의 판본 외에, 27품·28품·29품(혹은 30품)의 내용이 7권·8권·9권·10권의 다양한 판본으로 유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밖에 예외적인 경우도 발견된다. S.1527 서두에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第二十五’라고 되어있고 말미에는 ‘妙法蓮華經卷第一’이라고 기록되어있다. S.6802 역시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第二十五’로 시작하여 ‘妙法蓮華經一卷’으로 끝난다. 이 같은 예는 스타인본에서 이 두 가지 경우뿐이다. 여기서 ‘권1’의 표시는 어떤 의미일까? 얼핏 보면 필사자의 오류로 생각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9) S.2419(妙法蓮華經卷第三), 『敦煌寶藏』 권19, p.292.

는 법화경 가운데 ‘관세음보살보문품’만을 단독으로 필사하여 유통시키고자 한 의도가 담긴 것이었으리라고 짐작된다.¹⁰⁾ 돈황사본 가운데는 실제로 『불설관음경』 『관세음경』 『관음경』 『관음1권』 등으로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단일 경전으로 유통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¹¹⁾ 그것은 하나의 품이 ‘단일 경전’으로 여겨진 것으로, 일종의 품에서 經으로 위상이 격상된 것이라면, 지금의 두 가지 예에서는 여전히 경전 속의 한 품이라는 위상을 유지하면서도 그 중요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과도기적인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권차와 품차 별 분포

『묘법연화경』 異本の 유형을 파악한 데에 이어서, 이번에는 많은 사본들 가운데 특히 경의 어느 부분이 더욱 많이 필사되었는지를 조사해보고자 한다. 7권28품의 경전 내용 가운데 어느 권 혹은 어느 품이 많이 필사되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돈황과 그 주변지역에서 『법화경』의 어느 부분에 더욱 주목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10) 고려대장경에는 없고 『대정신수대장경』에만 수록된 것으로,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經』(『大正藏』9, 198a-b)이 있다. 앞부분에는 ‘御製觀世音普門品經序’가 있고 서문의 끝에는 ‘永樂九年五月初一日’라고 서문기록 시기가 표시되어있고,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經 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譯長行 隋北天竺沙門闍那崛多譯重頌”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경문은 『묘법연화경』 제25품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있다.

11) 『觀世音經』의 사본 수는 스타인본에 42건, 북본에 74건, 펠리오본에 4건, 아장본에 16건 수록되어 있다.

1) 권차 별 분포

『묘법연화경』사본 3,749건(〈표1〉 참조)에 필사된 내용의 권차를 모두 검토하여, 아래 〈표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단, 사본의 권차는 고려장을 기준으로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사본들은 동일한 경문에 대해서도 판본에 따라 권차 표기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실물대조 결과 확인된 고려장의 권차를 기준으로 필사 현황을 파악하였다.

〈표4〉『묘법연화경』사본의 권차 별 분포

법화경 권차	스타인본	북본	펠리오본	아장	계
제1권	176	217	26	72	491
제2권	174	278	18	50	520
제3권	160	241	16	45	462
제4권	148	237	21	79	485
제5권	147	238	16	48	449
제6권	163	243	9	81	496
제7권 ²⁾	320	394	36	185	935

예상되는 바와 같이, 네 가지 본 모두 「관세음보살보문품」을 포함하고 있는 제7권의 필사가 현저하게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제1권이 나 제2권의 빈도수가 높았다. 다만, 아장의 경우는 제6권이나 제4권을 포함한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 총계를 내어보면, 제7권에 이어서 제2권, 제6권, 제1권의 순서로 많이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에 품차 별 분포를 알아본다.

12) 제7권의 건수는 별도의 경전으로 유통된 『관세음경』류의 수를 포함한 것이다.

2) 품차 별 분포

〈표5〉『묘법연화경』사본의 품차 별 분포

권차	품	스타인본	북본	펠리오본	아장	계
1	제1 서품	126	170	16	50	362
1	제2 방편품	117	160	12	27	316
2	제3 비유품	147	247	16	26	436
2	제4 신해품	106	134	6	10	256
3	제5 약초유품	95	101	10	42	248
3	제6 수기품	93	132	5	10	240
3	제7 화성유품	120	190	10	14	334
4	제8 오백제자수기품	84	105	8	33	230
4	제9 수학무학인기품	75	100	5	6	186
4	제10 법사품	77	103	10	17	207
4	제11 견보탈품	86	121	5	17	229
4	제12 제바달다품	58	98	4	18	178
4	제13 권지품	50	91	4	5	150
5	제14 안락행품	101	138	8	26	273
5	제15 종지용출품	74	112	4	13	203
5	제16 여래수량품	82	107	6	13	208
5	제17 분별공덕품	84	117	5	8	214
6	제18 수회공덕품	74	99	1	26	200
6	제19 법사공덕품	88	134	2	23	247
6	제20 상불경보살품	81	104	2	16	203
6	제21 여래신력품	80	98	2	11	191
6	제22 축루품	78	97	3	3	181
6	제23 약왕보살본사품	89	116	6	15	226
7	제24 묘음보살품	94	94	6	14	208
7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	186	226	27	142	581
7	제26 다라니품	92	108	7	10	217
7	제27 묘장엄왕본사품	87	114	5	11	217
7	제28 보현보살권발품	66	105	2	15	188
(8)	(제29 도량천지품)	7	9	2	0	18
(8)	(제30 마명보살품)	4	1	0	0	5

필사된 품차의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권차 분포보다 더 명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장 많이 필사된 것은「관세음보살보문품 제25」이고, 그 다음에는「비유품 제3」·「서품 제1」·「화성유품 제7」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위의 권차 분포에서와는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각 권에 포함된 품의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돈황지역에서는 경의 제1, 2, 3권과 제7권에 해당하는 품들이 많이 필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돈황지역에서 법화경은 매우 인기 높은 경전이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관음품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위에서 보여주는 숫자는 곧 법화경을 受持讀誦하는 경전신앙보다 관세음보살을 稱念하는 관음신앙이 현저하게 우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법화경은 뛰어난 비유를 설한 경전으로 유명하다.¹³⁾ 위의 결과에서 「방편품 제2」보다도 「비유품 제3」이나 「화성유품 제7」의 필사가 더 많았다는 것은 곧 ‘一佛乘’이라는 경의 핵심 내용을 직접 설하는 것보다 비유로 설한 것이 훨씬 대중들에게 잘 전달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필사본에서 가장 주목되었던 품이 제25품과 제3품, 제1품 등이었다면 그림으로 표현되었던 법화경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연구에 의하면, 敦煌千佛洞에서 발견되는 法華經變相圖의 경우,

13) 『법화경』에서 특히 뛰어난 일곱 가지 비유를 들어서 ‘法華七喻’라고 한다. (1)火宅喻(비유품) (2)장자궁자유(窮子喻, 신혜품) (3)藥草喻(약초유품) (4)化城喻(화성유품) (5)衣珠喻(수기품) (6)鬘珠喻(안락행품) (7)醫子喻(수량품)

「견보탑품 제11」과 「관세음보살보문품 제25」가 가장 많이 그려져 있다고 한다.¹⁴⁾ 우리나라 불국사에도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는 것처럼, 「견보탑품」은 법화경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데 상당히 유효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돈황과 그 주변지역에서 유행했던 법화경에 대한 관심과 신앙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본 이외에도 변상도와 같은 회화, 불보상과 같은 조각 등의 미술품이나 각종 문학작품 등에 나타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II. 『묘법연화경』 제29품과 제30품

1. 연구 동향

돈황사본들 가운데는 法華의 僞經類로 알려진 「度量天地品 第29」와 「馬明菩薩品 第30」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그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지 않았으나, 일본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직접 사본을 검토하며 연구하여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축적 보완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 동향을 간략히 소개한다.

이 두 품의 사본을 처음 발견하여 소개한 이는 矢吹慶輝박사이다. 그는 일찍이 직접 영국으로 가서, 스타인이 입수한 돈황사본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일부의 사본들을 『鳴沙餘

14) 坂本幸男 編, 『法華經の思想と文化』, p.110 참조.

韻』(1933)에 영인하였고, 그 解説篇을 출간하여 사본의 제목과 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간략한 해제를 붙였으며, 일부 사본에 기록된 刊記를 활자로 옮기고 주석 및 교감 하여, 敦煌佛敎학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특히, 「度量天地品 第29」의 시작부분 29행에 해당하는 단편의 사본¹⁵⁾을 최초로 소개하였으며, 그것이 『대정신수대장경』 권 85 古逸部¹⁶⁾에 수록되었다. 「馬明菩薩品 第30」의 경우는 『개원석교록』과 같은 諸經錄에서 전혀 그 명칭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으나, 矢吹박사가 ‘妙法蓮華經馬明菩薩品第三十’이라는 제목의 사본¹⁷⁾을 발견함으로써 그 존재와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듬해 本田義英은 펠리오본 가운데 「도량천지품 제29」의 완본¹⁸⁾을 발견하여 소개하면서, 「마명보살품 제30」과의 同異를 비교 검토하였다.¹⁹⁾ 그 후 1970년경, 野村耀昌은 道敎 경전(續道藏)에 들어 있는 『太上中道妙法蓮華經』²⁰⁾과 「度量天地品 第29」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²¹⁾ 두 문헌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미 矢吹박

사가 지적한 바 있었으나,²²⁾ 野村은 「度量天地品 第29」을 포함하여 『묘법연화경』 여타의 품들과 「太上中道妙法蓮華經」의 상호관련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후, 河村孝照는 북경도서관 소장의 「度量天地品 第29」사본 5점을 접하여, 그 중 완본인 ‘生一七号’²³⁾를 중심으로 이전의 연구 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²⁴⁾

특히, 「度量天地品」은 天平8년(736) 일본으로 전해져 현재 고문서로 보관되어 있기²⁵⁾ 때문인지,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듯하다. 본고에서는 이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직접 사본을 검토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사항들을 덧붙여보고자 한다.

2. 度量天地品 제29

敦煌문서 가운데 「妙法蓮華經度量天地品」의 사본은 스타인본 7점, 북본 9점, 펠리오본 2점이 있다.(〈표6〉 참조) 이 가운데 품 전체의 내용이 필사된 것은 펠리오본 P.2234²⁶⁾와 북본 北.6189²⁷⁾이며, 모

15) 스타인본 S.1298에 해당함.

16) 『大正藏』 85, 古逸部, pp.1355c-1356a.

17) 스타인본 S.2734에 해당하며, 품 전체의 내용이 실린 필사된 것으로 『大正藏』 85, 古逸部, pp.1426a-1431b에 실려 있음.

18) 펠리오본 P.2234에 해당함.

19) 本田義英의 본 논문(『燉煌及高昌本法華度量天地品の解説及其本文比較』〈『佛典の内相と外相』, 弘文堂書房, 1934, 東京) 후반부는 「도량천지품」의 완본인 P.2234와 高昌出土本法華度量天地品の 단편을 대조 교감한 내용이다.

20) 『太上中道妙法蓮華經』은 『道藏』續集 第1058册(民國十四年刊行)에 수록되어 있음.

21) 野村耀昌, 「太上中道妙法蓮華經について」, 『法華經の成立と展開』(平樂寺書店, 1970, 京都), pp.695-723. 그 외에도 두 품의 성립배경을 道敎와 관련하여 살펴본 것으로, 河村孝照의 「度量天地品・馬明菩薩品形成の背景」(『法華經の思想と基盤』, 1980)이 있다.

22) 矢吹慶輝의 앞책, p.204 참조.

23) 현재 『돈황보장』 권97에 수록된 北本 6189에 해당함. ‘生一七号’는 北.6189라는 번호를 붙이기 이전의 분류 번호임. 『돈황보장』 권97 p.214의 문서명은 ‘北六一八九(生一七) 妙法蓮華經度量天地品第二十九’라고 되어있음.

24) 河村孝照, 「法華經度量天地品について」, 『宗教研究』 제47권3호(日本宗敎學會, 1974), pp.97-98.

25) 矢吹慶輝의 앞책, p.191의 註(2)에 의하면, “寫經請本帳, 正倉院文書, 天平八年(大日本古文書七-七八)”라고 되어있어, 「도량천지품」이 正倉院의 고문서로 보관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26) 『法藏燉煌西域文獻』 9, pp.289-295에 수록됨.

27) 『敦煌寶藏』 97册, pp.214-220에 수록됨.

두 파손된 부분도 없고 글자 상태도 좋아서 품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다. 분량은 한 행에 15~18字씩 經題와 尾題를 포함하여 각각 277행과 279행이며, 내용도 대략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수치나 설명방식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지금은 北.6189를 중심으로 두 본을 비교 검토해보기로 한다.

〈표6〉 『묘법화경』 제29품과 제30품의 돈황사본

품명	스타인본	북본	펠리오본	이장
度量天地品 第29	S.1298 S.2734(擬) S.4334 S.4490 S.4885 S.5389 S.6588	北6187 北6189 北6190 北6191 北6192 北8562 北8563 北8564 北8565	P.2234 P.3401	無
馬明菩薩品 第30	S.2734 S.3051 S.4572 S.5931	北6188	無	無

1) 품의 명칭과 流轉

『역대삼보기』나 『개원석교록』²⁸⁾ 등에 의하면, 본 품의 명칭은 『度量天地經』一卷・『妙法蓮華度量天地經』一卷・『妙法蓮華經度量天地品第二十九』 등으로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弘贊法華傳』卷2에서 隋代에 성립된 僞經이라고 한²⁹⁾ 것으로 보아, 본 품은 隋代이래로 ‘도량천지경’이라는 별도의 경전으로 유통되다가 후에 28품 분량의 『묘

28) 『歷代三寶紀』卷14(『大正藏』49, 119a), “度量天地經一卷”; 『開元釋教錄』卷18(『大正藏』55, 675b), “妙法蓮華度量天地經一卷 亦云妙法蓮華經度量天地品第二十九”라고 되어 있고, 그밖에 『弘贊法華傳』卷2・『衆經目錄』卷2・『大唐內典錄』卷10・『大周刊定衆經目錄』卷12 등에도 명칭이 보인다.

29) 『弘贊法華傳』卷2(『大正藏』51, 14c), “右二條非正經…隋費長房注僞經(妙法蓮華度量天地經妙法蓮華天地變異經)”

법연화경』에 덧붙여져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품의 사본인 P.2234와 北6189에는 권차가 ‘9’로 표시되어 있고, S.6588에는 ‘권8’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7권 혹은 8권 28품 본에 첨부되어 유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품의 사본이 발견된 지역은 돈황 외에도 高昌³⁰⁾과 중앙아시아 지역을 비롯하여 일본에 이르고 있다.³¹⁾ 돈황사본 北6190의 刊記에 ‘天保3年³²⁾(733)리는 기록과 일본 고문서에 기록된 ‘天平8년’(736)이라는 연대로 보면, 「도량천지품」은 8세기 초중반³³⁾에 중국서북부에서 위로는 중앙아시아로, 아래로는 일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역에 流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품의 구성

본 품은 관세음보살의 질문에 부처님이 답하는 내용의 長文과 앞의 내용을 거듭 노래한 77행 가량의 重頌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8행에서 설법 동기를 밝히고 있다. 먼저 관세음보살이 여러 보살들, 모든 하늘 그리고 사람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의 『묘법연화경』 설법을 듣고 未曾有를 얻었음을 감사한 다음, ‘저는 늘 밤낮으로 시방의

30) 高昌; 5~7세기 동(東)투르크িস탄의 투루판[吐魯番] 분지에 있던 한(漢)나라 사람의 식민지국가. 돈황과 중앙아시아로부터 중국의 서북부지역에 걸쳐있음. 현재는 돈황의 막고굴 제17洞에서 출토된 문헌들 외에도 투르판, 위구르 등의 지역에서 출토된 문헌들을 포함하여 폭넓게 ‘燉煌遺書’라고 부르기도 한다.

31) 河村孝照, 앞 논문, p.98a 참조.

32) 北6190의 刊記에 “天保三年九月十七日…”(『敦煌寶藏』97冊, p.225)라고 되어 있다.

33) 本田義英은 프랑스 파리국민도서관에 소장된 P.2234 「도량천지품제29」을 직접 검토한 결과, 필사 연대를 中唐(766~835)전후로 추정하고 있다.(本田義英, 앞논문, p.534)

한량없는 모든 세계를 두루 오가며 중생을 교화하고 있지만, 아직 天地의 깊고 얕음이나 멀고 가까움 등을 아직 알 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며, 세존께 설법을 청한다.³⁴⁾

講法の 주체로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설정한 것에서 經제작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관세음'은 법화경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보살이므로, 관세음의 인지도와 권위를 빌어서 본 품을 유통시키려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세음보살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중생의 부름에 응하는 존재이므로, 그 '언제 어느 곳이나'라는 점이 바로 본 품에서 설하고자 하는 '세상의 깊이나 넓이 등의 크기[度量天地]라는 주제와 상통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품은 원래의 경전인 『묘법연화경』과 최대한 공통점을 살려서 본 경의 연장선 상에 위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문에 이어서 重頌까지 덧붙인 것은 전형적인 佛經의 형식을 취하고자 한 것이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의 경우, 초기 형태는 長文만 있었으나 隋代에 와서 계송부분이 덧붙여졌다고 한다.³⁵⁾ 따라서, 관세음보살을 앞세워 제작된 「도량천지품」은 「관세음보살보문품」의 계송부분이 첨가된 이후의 시기에 만들어졌으며 형식까지 모방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34) 北6189(『敦煌寶藏』97冊, 214), “世尊我等無量諸菩薩衆并及一切諸天人等 以於佛前廣聞諸法敷演解說妙法華經 心淨踊躍得未曾有. 重白佛言, 世尊我常晝夜周旋往返十方一切無量世界教化衆生, 未知天地深淺近遠, 唯願世尊為我解說 令我大眾悉皆得聞.”
35) 『弘贊法華傳』卷2(『大正藏』51, 14b), “隋西域釋德志(妙法蓮華經普門品重誦偈).”

3) 품의 내용

본문을 크게 셋으로 나누면, 각각 地·天·염부제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으로 되어있다. 먼저, 大地의 심층 세계에 대하여 그 성분과 깊이를 설명한 다음, 대지는 곧 하늘의 기둥[天之梁柱]이며 천하의 만물이 모두 대지로부터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須彌山에서 일체 세간이 생겨나오며 그 동서남북으로 四洲가 있다. 수미산 위에는 忉利天이 있으며, 그곳에 다시 第1天으로부터 第33天이 있어서 각각 수명이 다르며 옷과 음식 등의 구족 여부가 다름을 설명한다. 다음은 日月의 운행을 중심으로 4계절, 1달 동안의 변화 등을 설하고, 이어서 수미산의 동서북쪽의 세계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남쪽의 염부제 중생들의 모습을 자세히 설하였다. 마지막에는, 중생이 고뇌 가운데서도 5계와 10선법을 행하고,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며 부지런히 정진하며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밤낮 일심으로 계를 지녀 구족하여 모자람이 없으면 그 과보로 마침내 부처를 이룰 것이며, 그 중간에 각자 행한 業力에 따라 위에서 설한 여러 天들과 사망의 여러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전체 내용 중 P.2234와 北6189 사이에 차이가 큰 부분은 도리천에 대한 설명이다. 北6189에서는 第1天부터 第18天까지를 五戒와 十善을 受持한 중생이 태어나는 곳이라 하고, 제19천은 天人이 있어서 마치 ‘諸佛菩薩’과 같아서 다름이 없다고 하며, 제20천부터 제33까지는 오직 ‘諸佛菩薩’만 존재하며 수명의 劫數는 불가사의하다고 되어있다.³⁶⁾ 반면에, P.2234에서는 제1천부터 제19천까지가 五

36) 北6189, 『敦煌寶藏』97冊, pp. 215a-216b

戒와 十善을 受持한 중생이 태어나는 곳이며, 제20천에는 天人이 있어서 마치 ‘諸菩薩’과 같아서 다름없으며, 제21천부터 제33천까지는 오직 ‘諸佛과 神王金剛密迹 등’이 머무르며 수명의 劫數는 불가사의하다고 한다.³⁷⁾ 즉, 두 사본에서 天人이 머무는 天의 위치와 ‘諸佛菩薩’ 혹은 ‘諸菩薩’과 같은 등의 표현이 다르며, 마지막 제33천까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설명의 방식에서도, 북본은 제1천부터 제33천까지 각 천마다 설명을 붙인 반면에 펠리오본에서는 제21천부터 제33천까지는 한꺼번에 모아서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렇게 두 본은 설한 내용과 형식면에서 相異한 점이 있다.

河村孝照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보아 두 사본이 동일 계통이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두 본 모두 天에 대하여 제33천이상은 전혀 설하지 않았으며 佛菩薩이 生天한다고 설명하는 것 등으로 보아 전혀 불교의 교리와 세계관에 맞지 않는 것임을 지적하였는데³⁸⁾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두 사본의 長文은 위와 같이 문장이나 설명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계송 부분은 몇 글자 혹은 몇 구절의 출입 외에는 거의 일치한다. 특히, 33천의 설명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본 모두 ‘其第二十一 乃至有頂天 而於是中間 無有諸天人 諸佛菩薩等 於中而止住 其壽命劫數 不可得思議³⁹⁾’라는 동일 문장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내용을 검토해보면 이 구절들에는 두 본의 長文 내용이 절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제21천으로부터 제33천인 유정천까지其

第二十一 乃至有頂天’라는 것은 펠리오본 長文에서 설명된 방식이며, ‘(그 사이에는 천인들은 없으며) 제불보살들만 머무른대[無有諸天人 諸佛菩薩等 於中而止住]’고 한 것은 북본 長文에만 설해진 내용이다. 이처럼, 두 사본의 長文 내용들이 종합, 절충되어있는 계송이 두 사본의 말미에 공통으로 들어있다. 이것으로 보아, 이 계송부분은 두 사본의 장문이 성립된 시기보다 후에 만들어진 것이며 두 본이 공통으로 그것을 채택하여 長文 뒤에 첨부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馬明菩薩品 제30

본 품의 사본은 돈황문서 가운데 스타인본 4점과 북본 1점이 있다.(위의 <표6> 참조)⁴⁰⁾ 그 중 S.2734는 ‘妙法蓮華經馬明菩薩品第三十’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完本이며, 본문의 분량은 30~36자씩 245행 정도로 거의 「도량천지품」의 두 배에 이른다.⁴¹⁾ 北6188은 품의 뒷부분이 필사된 것으로 ‘妙法蓮華經卷第八’이라는 尾題⁴²⁾가 있어서, 8권본 『묘법연화경』에 덧붙여 유통된 것임을 알 수 있다.⁴³⁾

37) P.2234, 『法藏敦煌西域文獻』9, pp.290b-291b

38) 河村孝照, 앞 논문, pp.97b-98a 참조.

39) 北6189, 『敦煌寶藏』97冊, p. 219b; P.2234, 『法藏敦煌西域文獻』9, p.295a

40) S.2734가 大正藏 권85(p.1426a-1431b)에 실려 있음. 품의 내용 전체가 실림.

41) S.2734, 『敦煌寶藏』22冊, pp. 665-669

42) 北6188, 『敦煌寶藏』97冊, pp. 211-213

43) 앞에서 「도량천지품제29」 사본의 경우 권8(S.6588) 혹은 권9(北6189)로 표기되어 있었다. 北6188 「마명보살품」의 경우는 前者와 같은 권8 所載의 「도량천지품」에 잇달아서 유통되었으리라고 추정된다.

1) 품의 명칭

「妙法蓮華經馬明菩薩品第三十」이라는 명칭은 諸經錄에는 기록되어있지 않고, 돈황문서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다. 『묘법연화경』의 ‘제30품’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도량천지품」제29에 연이어 유통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矢吹慶輝박사는 본 품의 사본을 발견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諸經錄에 기록된 『妙法蓮華天地變異經』⁴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추정하였다.⁴⁵⁾ 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의 「도량천지품」과 大同小異한데 다만 앞품은 천지세계의 크기(度量)를 주로 설하였다면, 본 품은 그것과 더불어 천지세계의 생성이나 소멸과 같은 변화(變異)의 측면이 부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품이 바로 『妙法蓮華天地變異經』일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추정은 지금까지 異論없이 받아들여져 오고 있다. 실제로, 『弘贊法華傳』卷2에 “妙法蓮花度量天地經妙法蓮花天地變異經”이라고 두 경(품)의 이름이 나란히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더욱 수긍할 만하다.

다음은 품명 표기와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 『敦煌寶藏』에 표기된 돈황문서 名에는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다. S.2734, 北6188에는 ‘馬鳴菩薩品’으로 표기되어 있고, S.3051, S.4572, S.5931에는 ‘馬明菩薩品’이라고 되어 있다. 특히, 본 품의 전체 내용이 실려 있는 S.2734의 경우, 『돈황보장』의 문서명은 ‘妙法蓮華經馬鳴菩薩品第三十’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돈황문서의 經題는 ‘妙法蓮華經馬明菩薩品第

三十’이라고 되어 있다. 두 가지 명칭 모두 사용하여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돈황사본에 표기된 명칭을 따라서 다섯 가지 사본 모두 품명을 ‘馬明菩薩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다.

아울러, 본 품의 제목을 왜 ‘마명보살품’이라고 붙였을까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馬鳴(Aśvaghōṣa, CE100~160경)은 본래 중인도 마갈타국 출신으로 대승불교의 시조이자 대승의 대표적인 논사로 유명하다.⁴⁶⁾ 그러나 ‘마명’이라는 同名異人이 많아서 『석마하연론』에서는 6명의 마명이 있었다고도 한다. 또 ‘마명보살’(馬鳴菩薩 혹은 馬明菩薩)은 ‘蠶神’이라고도 불리며 밀교에서 공양의 대상이기도 하다.⁴⁷⁾ 이처럼 ‘마명’이라는 이름에는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위대함과 더불어 불특정 다수라는 모호함이 있다. 특히, 본 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명’이라는 인물의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또한 관련된 의미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다만 ‘마명’이라는 大論師의 이름을 빌어 經文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려 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또 한편으로는 대승의 대표적 인물인 마명은 한문으로 옮길 때 ‘馬鳴’으로 표기하지 ‘馬明’으로는 쓰지 않는다. S.2734에 ‘馬明菩薩品’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보면, 대승의 논사 자체라기보다는 그 명성을 차용하였다는 추측이 더 적합할 듯하다.

44) 『弘贊法華傳』卷2(『大正藏』51, 14c)에는 “右二條非正經…隋費長房注偽經(妙法蓮花度量天地經妙法蓮花天地變異經)”이라고 되어 있고, 『開元釋教錄』卷18(『大正藏』55, 675c), 『衆經目錄』卷2(『大正藏』55, 126c) · 『大唐內典錄』卷10(『大正藏』55, 334b) · 『大周刊定衆經目錄』卷15 등에도 “妙法蓮華天地變異經一卷”이라는 명칭이 보인다.
45) 矢吹慶輝의 앞책, p.207 참조.

46) 馬鳴은 문학과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 몸소 가곡을 지어서 연주하며 無常의 이치를 가르쳐 사람들에게 법을 전했다고도 한다. 붓다의 생애를 시로 읊은 『佛所行讚』5권을 비롯하여 『大莊嚴論經』15권, 『대승기신론』1권 등의 저술이 전해지고 있다.
47) 悉曇藏卷一 · 鼠環卷下蠶馬同本條.

2) 품의 구성

본 품의 구성은 앞의 「도량천지품」과는 전혀 다르다. 경문을 설하는 동기도 전혀 언급되지 않고, 부처님이 본론을 바로 설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마지막 부분 또한 뭔가 내용이 계속되는 듯한 문장이다. 그리고, 전체 내용을 살펴보아도, 『법화경』을 수지독송 하는 공덕처럼 『법화경』과 관련된 언급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본 품은 『법화경』의 이름을 빌어서 말미에 첨품되었다고는 하지만, 본 경전과는 전혀 연계성을 찾을 수가 없다. 「도량천지품」에서는 서분·정종분·유통분 그리고 重頌까지 갖춰진 경전의 전형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적어도 『법화경』에 관련된 최소한의 언급이라도 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마명보살품」은 형식적인 면에서 훨씬 불완전해 보인다.

3) 품의 내용

내용의 맥락은 「도량천지품」과 비슷한 듯하지만, 보다 상세하고 불교 경전의 교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체계적이라 할 수 있다. 내용을 크게 셋으로 나누면, 첫째 天地의 파괴와 생성에 대한 부분, 둘째 欲界天·色界天·無色界天에 대한 부분, 셋째 18지옥에 대한 설명 부분이다. 「도량천지품」에서는 天地 자체의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면, 본 품에서는 天地가 사라지고 생겨나는 변화(變異)의 모습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33천의 하늘 세계와 18지옥에 대한 설명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점이 커다란 차이점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있으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앞품과 내용이 대동

소이하므로 본 품은 蛇尾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거나⁴⁸⁾ 혹은 적어도 뭔가 다른 취지를 갖고 있기는 하였을 것이라고만⁴⁹⁾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본 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량천지품」과 차별되는 점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다. 몇 가지만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내용은 품의 끝부분에 밝힌 것과 같이⁵⁰⁾ 『大樓炭經』類의 경전⁵¹⁾에서 내용을 발췌 요약하여 편집한 것이다. 즉, 천지의 모습과 變異를 설하더라도 불교 경전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둘째, 三界의 33천을 설명하면서 그곳에 불보살이 머무는 곳이라는 등의 비불교적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그 대신 6욕천에서는 五欲樂을 좋아하고 22개의 색계천에서는 禪定樂을 탐닉하며 4무색천에서는 寂滅樂을 좋아하므로, 이것 또한 三災에 의해 파괴되는 三戒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설하였다.⁵²⁾

셋째, 각 세계에 태어나는 因果의 도리를 명확하게 밝혔다. 앞의 「도량천지품」에서는 한 줄 정도의 언급에 지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본 품에서는 본문 가운데서 상세하게 밝히고 거듭 계송으로 다음

48) 矢吹慶輝, 앞 책, p.206 참조.

49) 本田義英, 앞 논문, pp.537-538 참조.

50) S.2734, 『敦煌寶藏』22冊, 669 (혹은 『大正藏』85, 1431b), “曰大樓炭經一百二十卷. 廣明世界中事. 大經難見. 是故此中略句其要耳.”

51) 『大樓炭經』: 약칭 樓炭經. 須彌山과 四洲의 모습, 世界의 成立과 破壞時期 등이 설해져 있다. 본 경전의 異譯本은 네 가지가 있다. ① 『大樓炭經』 6권13품: (1) 閻浮利品, (2) 鬱單曰品, (3) 轉輪王品, (4) 泥梨品, (5) 阿須倫品, (6) 龍鳥品, (7) 高善士品, (8) 四天王品, (9) 初利天品, (10) 戰鬥品, (11) 小劫品, (12) 災變品, (13) 天地成品. ② 『起世因本經』 10권12품 ③ 『起世經』 10권12품 ④ 『長阿含』 권18이하 5권. 그밖에 『正法念處經』이나 『立世阿毘曇論』 등은 이 경의 좀 더 발전된 형태를 보여주는 경전들이다.

52) S.2734, 『敦煌寶藏』22冊, 669 (혹은 『大正藏』85, 1431a), “又無色界四空處天 樂寂滅樂. 次有色界二十二天 樂禪定樂. 次有欲界六天 樂五欲樂. 三界雖樂猶不免三災所壞.”

과 같이 노래하였다. ‘十善으로 하늘에 나고/ 5계로 인간 몸을 받으며/ 10악으로 지옥에 떨어지고/ 충동적인 자는 축생에 떨어지며/ 인욕하면 단정함을 얻고/ 성내면 못생긴 모습되고/ 보시하면 부유한 자되며/ 아끼고 탐내면 가난한 곳에 떨어지리.’⁵³⁾

넷째, 18지옥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며 특히 아비지옥의 경우를 다 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세간에 어리석은 중생이 오역죄를 지어서 부모를 죽이고 스승을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며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불상이나 탑 절을 부수고 화합승가를 파괴하거나 승물을 훔치고 경전을 비방하거나 시방의 부처님을 헐뜯고 계를 破하는 인과와 같은 갖가지 무거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목숨이 다한 후에 아비지옥에 들어간다. 아비지옥은 하루가 인간 세상의 시간으로 60小劫인데, 적어도 8만4천大劫을 보내게 된다. 그 후에는 각각 다른 지옥을 거쳐서 축생으로 나는데 그 시간이 1000만세이며, 나중에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노비나 빈궁, 하천하게 태어난다.’⁵⁴⁾

다섯째, 위의 아비지옥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그러므로 사람 몸 얻기 어렵다고 하며, 부처님 계신 세상을 만나기 어렵다고 하고, 경전의 가르침 만나기 어려우며, 승가를 만나기 어려우며, 밝은 스승 만나기 더욱 어렵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 몸 받아 부처님을 뵈고 법을 들으면 마땅히 힘써서 도 행하기를 우선 삼아야 한다. 결코 몸과 입과 생각으로 放逸해선 안 된다. 게으른 자는 한 번 人根을 잃으

면 萬劫동안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⁵⁵⁾

이상의 내용들로 보면, 본 품은 천지의 生滅變異라는 주제 하에 결국은 모든 존재의 모습에 내재한 因果의 도리를 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궁극에는, 天地 가운데서도 현재 처한 ‘인간’의 몸 얻기가 얼마나 어려우며 더욱이 佛法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이며, 행여 放逸한다면 더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고 경계한 점 또한 본 품의 중요한 의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경전의 형식으로 보면 「도량천지품」보다 불완전해보이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훨씬 불교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도량천지품」과는 달리, 『법화경』과의 개연성이 전혀 없으면서도 『법화경』에 편승하여 유포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隋代에 樓炭經類의 僞經들이 유행하였었다는 사실⁵⁶⁾로 미루어보면, 북주 무제(560-578재위)의 廢佛단행과 멀지 않은 隋代에 와서는 자연히 佛法을 수호하고 부흥시키려는 노력이 활발해졌을 것이다. 樓炭經類의 僞經이라고도 볼 수 있는 본 품 또한 불상이나 탑 절을 부수고 승가를 파괴하거나 승물을 훔치고 경전을 비방하며 계를 破하는 것과 같이 불법을 훼손하는 온갖 행위들을 경계하고 바른 因果의 이치를 전하려는 의도로 대중에게 관심도가 높은 『묘법연화경』의 말미에 덧붙여서 유통시켰던 것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

53) S.2734, 『敦煌寶藏』22冊, 667 (혹은『大正藏』85, 1428c), “爾時世尊即說偈言。十善得生天 五戒服人身 十惡墮地獄 低突墮畜生 忍辱得端政 瞋恚得醜陋 布施得大富 慳貪墮貧窮”

54) S.2734, 『敦煌寶藏』22冊, 668 (혹은『大正藏』85, 1430c-1431a) 참조,

55) S.2734, 『敦煌寶藏』22冊, 668 (혹은『大正藏』85, 1431a), “以是因緣人身難得。佛世難得。佛世難值。經法難聞。眾僧難遇。明師難遭。以得人身值佛聞法。宜應惻厲行道為先。難身口意慎莫放逸。放逸者一失人根萬劫不服。甚難甚難。復得為人。”

56) 矢吹慶輝, 앞 책, p.206 참조.

맺음말

지금까지 돈황사본에서 발견된 『묘법연화경』(구마라집역)의 異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였다. I장에서는 먼저 『묘법연화경』 스타인사본을 대상으로 異本들의 판본 유형을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현행본인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7권28품과는 다른 몇 가지 유형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사본들에서 제공되는 권차와 품차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샘플로 삼아 그 정보를 퍼즐처럼 맞춰본 결과, 10권27품본(A)·8권28품본(B)·현행본과 권차 구분이 다른 7권28품본(C) 그리고 제14품이 권4에 속한 판본(D) 등의 유형들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잠정적인 결과일 뿐, 복본이나 펠리오본 등의 나머지 사본들까지 검토해보면 또 다른 유형들이 있거나 혹은 위 유형들의 좀 더 정확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묘법연화경』의 돈황사본에 필사된 내용의 권차와 품차를 확인하여 그 빈도수를 조사하여 보았다. 스타인, 복본, 펠리오, 아장본 모두 「관세음보살보문품」을 포함하고 있는 제7권의 필사가 현저하게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제2권, 제6권, 제1권의 순서로 많이 필사되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필사된 품은 「관세음보살보문품 제25」이고, 그 다음에는 「비유품 제3」·「서품 제1」·「화성유품 제7」의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곧, 돈황지역에서는 법화경을 受持讀誦하는 경전신앙보다 관세음보살을 稱念하는 ‘관음신앙’이 현저하게 우위에 있었을 것이며, 경전의 내용 전달에 있어서도 直說보다는譬喩를 통한 것이 훨씬 설득력 있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II장에서는 『묘법연화경』에 첨품되어 유행하였던 「도량천지품

제29」와 「마명보살품 제30」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두 품 모두 隋代에 제작되어 別經으로 유통되던 것이 『묘법연화경』에 첨품된 것으로 보이며, 내용이 대동소이하지만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이들 두 품은 비록 僞經일지라도, 중국 서북부에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일본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8세기 초중반 무렵에 유통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도량천지품」은 佛經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으나 내용은 다분히 도교적이다. 또한, 두 사본 P.2234와 北6189의 본문과 계송부분을 검토한 결과, 두 사본의 본문 부분이 먼저 형성되고 차후에 계송부분이 완성되어 각각 계송을 첨부한 것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었다.

다음, 「마명보살품 제30」의 경우는 그 내용으로 보아 諸經錄에 『妙法蓮華經天地變異經』이라고 이름된 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성면에서는 경전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도량천지품」보다 훨씬 불교적이며 『大樓炭經』류의 僞經으로 볼 수 있다. 천지의 變異와 더불어 존재의 因果법칙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옥의 인과를 강조함으로써 일체의 악업은 물론이며 불법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철저히 경계하고, 인과의 법칙을 잘 알아서 佛法을 게으름없이 바르게 행할 것을 강조하였다고 보인다.

이상으로 돈황의 『묘법연화경』 한문사본들의 판본 유형을 재구성해보고, 法華僞經인 두 품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5~13세기 당시 돈황지역에서 유행한 법화경과 법화신앙의 일면을 추정해보고자 하였다.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한 후에 좀 더 수정된 결과를 얻을 것을 기약해본다.

참고문헌

- 鳩摩羅什譯, 『妙法蓮華經』, 『高麗藏』9 / 『大正藏』9
- 『弘贊法華傳』, 『大正藏』51
- 『開元釋教錄』, 『大正藏』55
- 『衆經目錄』, 『大正藏』55
- 『大唐內典錄』, 『大正藏』55
- 『古今譯經圖紀』, 『大正藏』55
- 黃永武博士主編, 『敦煌寶藏』140冊, 驪江出版社, 1989
- 法國國家圖書館 上海古籍出版社編, 『法藏敦煌西域文獻』, 1995~2005, 上海
- 俄羅S.科學院 上海古籍出版社編, 『俄藏敦煌文獻』17冊, 1992~2001, 上海
- 敦煌研究會編, 『敦煌遺書總目索引新編』, 中華書局, 2000, 北京
- 榎一雄, 講座敦煌7『敦煌と中國佛教』, 大東出版社, 1984, 東京
- 中村瑞隆 編, 『法華經の思想と基盤』, 平樂寺書店, 1980, 京都
- 坂本幸男 編, 『法華經の思想と文化』, 平樂寺書店, 1971, 京都
- 金倉圓照 編, 『法華經の成立と展開』法華經研究 III, 平樂寺書店, 1970, 京都
- 本田義英, 『佛典の内相と外相』, 弘文堂書房, 1934, 東京
- 矢吹慶輝編, 『鳴沙餘韻』 解說篇, 岩波書店, 1933, 東京
- 朴商洙, 「敦煌文獻의 漢文佛教經典 構成類型 考察」 『韓國佛敎學』第54輯, 2009
- 上山大峻, 「敦煌佛敎研究の現狀」 『佛敎學セミナー』제53호, 大谷大學佛敎學會, 1991
- 河村孝照, 「法華經度量天地品について」 『宗教研究』제47권3호, 日本宗教學會, 1974
-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 시스템 <http://kb.sutra.re.kr/ritk/search/searchBranch.do>

A study of the different editions of *Saddharmapuṇḍarīka* Sūtra in Dunhuang Manuscripts

Oh, Ji-yeon

Researcher of Tripitaka Koreana Institute

This study is investigating several matters of the different editions of *Saddharmapuṇḍarīka* Sūtra, translated by Kumārajīva in Dunhuang Manuscripts.

First, I have founded at least 4 editions of the *Saddharmapuṇḍarīka* Sūtra that do not correspond with Tripitaka-Koeana(TK) from the Stein collections. They are the manuscripts of 10 volumes 27 chapters(A), 8 volumes 28 chapters(B), 7 volumes 28 chapters different form TK in dividing volumes(C) and the other one(D).

Second, it is the 7th volume including “the chapter of Guanyin(觀音品)” that was written in the highest frequency. In order of the writing frequency, “the chapter of Guanyin” was the first and “the chapter of metaphors(譬喻品)” was the second. From this point, the faith in Guanyin was very popular, and the various metaphors in the Lotus-sutra was the best method in the propagation of teaching of the sutra in Dun-

huang at that time.

Third, I have compared the 29th chapter with the 30th chapter that are kinds of apocrypha(偽經) and added to the *Saddharmapuṇḍarīka* Sūtra in the early 7th century. “The chapter of measures of the whole world(度量天地品)”, the 29th chapter of the Lotus-Sutra completes the formality as a Buddhist sutra, but the content is quite inclined to the Taoism. On the otherhand, “the chapter of Ma-myung Bodhisattva(馬明菩薩品)”, the 30th chapter of the Sutra has very incomplete form, but contains the substance coinciding with Buddhist teaching.

As a result, it becomes possible to guess a little sign of popular versions of the *Saddharmapuṇḍarīka* Sūtra and religious life on the Lotus-sutra around Dunhuang from 5th to 13th century.

Key Word

Dunhuang Manuscripts, *Saddharmapuṇḍarīka* Sūtra, the different editions, “The chapter of measures of the whole world(度量天地品)”, “The chapter of Ma-myung Bodhisattva(馬明菩薩品)”

✎ 투고일자 2010.3.14 | 심사일자 2010.4.11 | 게재확정일자 2010.4.14